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성화 수요일 : 3월 5일(수) 사 순 절 : 3월 5일(수)~4월 19일(토)
종려 주일 : 4월 13일(주일) 고난주간 : 4월 13일(일)~4월 19일(토)
성화 목요일 : 4월 17일(목) - 세족식
성화 금요일 : 4월 18일(금) - 예수 수난 영화 감상
성화 토요일 : 4월 19일(토) - 달걀 포장 및 부활절 전도
부활 감사절 : 4월 20일(주일) - 부활절감사/새생명초청/총동원/세례식

3. 교회 차량 보험가입 협조 요청

교회 차량 보험금이 2,585,730원으로 예상보다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5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성도분들께서는
<차량한금> 지원요청을 부탁드립니다.

4. 부활절 세례예식 / 세례신청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감사예배를 맞이하여 세례예식을 갖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분들께서는 담임목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 : 박태성 / 청소년 : 강민지 박수진 이종빈 정안희)

5. 아하브 코업 정기모임

3월 25일(화) 오전 10:45 ~ 오후 15:30 주사랑교회 분당/교육관
(마가복음 영어암송, 한국사, 글쓰기, 마인드맵, 타악기 수업)

6. 태신자 작성서를 작성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태신자 작성 및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7. 성도동정 (건강, 안전, 평안, 행복, 사명,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오현진(군복무 중), 이다남(병가), 박영대(병가), 임명순(무릎인대파열)
김해숙 권사(디스크 협착증, 통원치료), 오민지 집사(출산 회복, 태아 건강)

8. 2025년 3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2.2 ~ 3.3)

3/16(일)-박태성 성도(-2.17) 3/02(일)-김주하 어린이 3/24(일)-정완희 학생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 일 대 표 기 도

3/23 임명자 집사
3/30 임명숙 집사
4/06 김해숙 권사
4/13 정애자 권사
4/20 박제연 집사
4/27 이광근 안집사
05/04 임명자 집사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3/23	사순절(3주) / 태신자 작성(3주)
03/25	아하브코업 홈스쿨 장기모임
03/30	사순절(4주) / 태신자 작성(4주)
	선교 헌신의 주일모로코 소개
04/01	찾날맞이 일석예배(성찬예식)
04/03	산상 기도회
04/06	사순절(5) / 태신자 만남(1주)
	직원회 (1/4 분기)
04/08	아하브코업 홈스쿨 장기모임
04/11	대한민국임사장부 수렵가침일
04/13	종려주일
04/17	성화 목요일세족식, 가양별
04/18	성화 금요일예수 수난영화 감상
	아하브코업 홈스쿨 특강

주 일 차 량 운 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탑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탑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생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주사랑 8권 12호
창립 2017.11.25

2025년 3월 2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 태신자 작성 ③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사순절 3주 태신자 작성주일 ③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55:3)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 태산자작정주일 ③) 인도:집례자

※ 목 도 시편 63:1~4 인 도 자

※ 찬 송 가 찬 38장 다 같 이
(예수 우리 왕이여)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26 사순절(3) ㄸ

찬 송 가 찬 486장 다 같 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대 표 기도 임명자 집사
(청년부 부장)

※ 성경 봉독 이사야 55:1~9 (구 1035) 임명자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주신 약속 담임목사

봉헌찬송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헌금위원 : 한성결 학생)

※ 축 도 담임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십 일 조 : 장나라 아가들

주정헌금 : 문제호 박제원 오동영 임명숙 이광근 임명순 임명자 한승훈 정애자 아가들

감사헌금 : 김주형 이광근 박제원 박태성 전복순 정현숙(감사, 이사, 취업) 한승훈 임명순 무명

교회학교 : 이재아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한하락

구역헌금 : 박제원 임명순

선교헌금 : 오동영 임명숙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통일선교비전기도회

오후 1:00 한승훈 목사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누가복음 9:28~36 (신 107)
말씀제목 예수님의 참 모습을 체험한 자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기도회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시편 63:1~11 (구 864)
말씀제목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다

가정·구역예배(목)

오후 2:00 부모님 중
성경봉독 열왕기상 21:1~10 (구 553)
대표기도 자녀들 중
말씀제목 의로운 포도원자 나뭇

심야기도회(금)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0:1~14 (신 274)
말씀제목 우상숭배하는 일을 패하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월~금)
23일(일) 눅 9:28-36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아는 자
24일(월) 눅 9:37-43 네 아들을 아리로 데려와
25일(화) 눅 9:44-48 사람들 손에 넘겨지라
26일(수) 눅 9:49-56 예수를 만지 않으려는 마들
27일(목) 눅 9:57-62 너희는 나를 따르라
28일(금) 눅 10:1-16 순종하여 전도하는 칠십인
29일(토) 눅 10:17-24 칠십인의 승리와 예수님의 강사
30일(일) 눅 10:25-37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예수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가타 기관 선교

오픈도어즈선교회 한국북한선교연구원
모퉁이돌선교회 한국성결신문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장애우고용마을

국기선교(오주교훈홍스쿨)

이재우-재화-재아
홍스쿨링
성직기정
복음적 다양체

해외선교(모로코)

함메드로 선교사
안사랑 선교사
모로코
컴미전 파송
소리 단이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교단총회 향촌부서
북한선교장학수립
북한성결교회재건
북한이탈주민정착
통일선교학교

- ⑥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룩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유다 가문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 36:2~4)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알려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에서 돌아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 하시니라
- ⑦ 바룩의 두루마리를 읽은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렘 36:22~26)
그 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가 있더라 여후다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 자기들의 ()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 디엘의 아들 셀레미에게 명령하여 ()과 ()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 ⑧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승리를 예언한 예레미야를 첩자로 생각하고 가둔 곳은 어디인가요?(렘 37:15~16)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라 예레미야가 ()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 ⑨ 시드기야가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예레미야의 응답은 무엇 이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까요?(렘 37:17,)
¹⁷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 의 손에 ()²¹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 ⑩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함락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렘 38:6)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이 없고 ()뿐이므로 예레미야가 () 속에 빠졌더라
- ⑪ 예레미야가 말기야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 구출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렘 38:11)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님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①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통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렘 33:15)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와 ()를 실행할 것이라

② 남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아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렘 34: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

③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는 시드기아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범한 백성들을 향하여 저지른 큰 범죄는 무엇인가요? (렘 34:9~11)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로 삼았더라

④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렘 35:14~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아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⑤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조상들과의 작은 약속도 지키고 있는 레갑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므로 어떤 상을 받게 되나요? (렘 35:18~19)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1)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고통 중에 굶주림도 매우 괴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은 갈증입니다.

일제 시대에 강제징병을 당해 화물선에 짐짝처럼 실려 남양군도로 갔던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망망한 바다 한 가운데에서도 일본 군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방울의 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펍펍 쓰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들 “물! 물!”하고 외치다가 목을 쭉 빼고는 쓰러졌습니다. 그때서야 일본 군인들은 쓰러진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는데,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피병을 부린다며 무자비하게 짓밟고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갈증에 시달렸던지 차라리 바다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육지에 닿자 그들은 한 양동이의 물을 쉬지도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고 합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이처럼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더 극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말라 있기 때문에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갈증만을 더할 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뻐한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2).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사 55:3).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885	복조 시므리의 모반	왕상 16:16
찬송가		찬 484장		885	오므리 왕의 등극	왕상 16:23
대표기도		자녀	중	824	아합의 등극	왕상 16:29
성경봉독		왕상 21:1~10		말은	이	왕상 17:1-24
말씀인도		의로운 포도원지기 나봇		부모님	중	860
합심기도		다	같이		아합과 벤하닷의 허무한 대결	왕상 20:1~12
헌금기도		찬 486장		말은	이	
주기도문		다	같이		하나님이 아합을 위해 싸우다	왕상 20:13-21
					한 선지자의 아합의 심판 선언	왕상 20:35-43
					나봇의 죽음과 아합의 불순종	왕상 21:1~10

■ 들어가는 말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이 있는 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합의 사마리아 왕궁 가까이에 이스라엘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 큰 가뭄 속에서도,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 포도원이 얼마나 잘 가꾸어져있던지,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의 푸르름에 감탄한 나머지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면 좋겠다 중동에 사로잡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일 포도원을 판다면 좋은 값을 치러주고, 그보다 더 비싼 값이라도 주겠다고 설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합 왕의 제안은 나봇에게 나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돈을 취하고 포도원을 판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큰 이득이었으며, 그 돈으로 다른 포도원을 사도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아합 왕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백성의 땅을 무조건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매우 너그럽고 후한 조건도 제안해 주었으니, 왕의 행동은 칭찬 받을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건은 아합 왕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합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불의한 세상의 물질적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나봇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1~4).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아합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양도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토지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합 왕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했을 때,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이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레 25:23). 토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표이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임이니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민 36:7).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한 것은 ‘충분한 보상을 줄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유혹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합 왕의 눈에는 나봇의 포도원이 한낱 나물 밭에 불과해 보였는지는 몰라도, 나봇에게는 자신의 신앙과 생활의 터전인 전부였던 것입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아합 왕의 좋은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봇의 삶에 배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우리의 삶의 지경)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마 6:10).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 증거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선해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5~10)

나봇은 경제적 득실을 계산하지 않고 단지 땅을 임의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레 25:23~28). 하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한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큰 호의를 매정하게 거절한 것’처럼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기어코 얻어내려는 ‘선하게 보이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하소연의 소리를 들은 아내 이세벨은 자신의 권력으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거짓 증인들을 준비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금식일 까지 선포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금식의 행위를, 이세벨 왕비는 선량한 백성 나봇을 정죄하고 살인하려는 목적으로 수단화합니다. 게다가 이세벨 왕비는 나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준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아내의 악행을 묵인하고 방치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직분은 백성들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섬겨야 하는 종이며,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소유인 나봇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나봇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탐욕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기도를 멈추는 등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 봐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세상의 힘과 소유와 쾌락을 숭배하며 이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람인지 점검 해야 합니다.

■ 맺음말

아브라함 링컨은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쥐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충분하게 미리 시험하고 검증한 후 권력을 맡겼더라도 후유증은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아합 왕은 국가권력을 사유화 하여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아합 왕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탐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탐욕으로 인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탐심의 대상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인생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모든 삶이 그것에 의해 조정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정당화되고 합리화된 해석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했습니다(골 3:5). 현재 나라가 이러한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